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바자본부 모임 / 6일(주일) 오후 1시 609호
2. 아브라함선교회 임원회 /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801호
3. 모세선교회 임원회의 / 6일(주일) 오후 2시 609호

◆ 알림

1.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다섯 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이 10월 20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0월 6일(주일)까지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0월 13일(주일) 낮 12시 20분 609호
 -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10월 13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신청접수처: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2. 권사회 주관 교회를 위한 기도회 / 매 주일 오후 1시 101호
3.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010-2376-3892번으로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분야: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문자 양식: 교구, 성명, 상담분야)
4. 70인전도대 노방전도(빌립, 안드레, 베드로) 10/6(주일) 오후 1시 603호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602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6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202호

부 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조하영 협동목사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카자흐스탄), 이경영·송은옥,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위나이(인도), 에디슨 몰리, 라존 뽀꾸야, 까첸드로 리씨, 도렌드로 디오, 토론 짬부공, 오을 까꼬따, 폰노야 므롱, 맨톤 므롱(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김명일, 김춘기(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 히브리서 10:19-25

금년 우리 교회 사명자대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덮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뒤떨일 수 있을까요?

1.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는 박해와 유혹에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혹과 압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20절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순간에 회장도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된 관계도 철폐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로 돌아보아

박해와 유혹의 상황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은둔형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적으로 은둔하면서 신앙을 지키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본 의도와 관계없이 결국은 배교자로 귀결되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공개적이어야 하고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려는 사람들’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올해 교회 사명자 대회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참 사랑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이런 맥락에서 금년 사명자 대회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의 결정체이며 언제나 이기적 기제가 작동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에서도 사랑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요일 2:16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능력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사랑의 은사를 얻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사랑이 실천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5:14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물결이 물려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I 오전 9시	최종국 목사	노제현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이민호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예배로 부름	시 117:1-2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찬 송	9(4절)	다 함 께	환영과 축복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봉 헌	다 함 께
* 성서 교육	3(시 4)	다 함 께	* 봉헌, 목회기도	설 교 자
* 송 영	6	다 함 께	찬 양	찬 양 대
기 도	말 은 이		교회 소식	영 상 광 고
찬 송	251	다 함 께	성경 봉독	히 10:19-25
성경 봉독	히 10:19-25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뒤희사”	손달익 목사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결단의 기도와 찬양	찬 양 팀
봉헌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봉헌송	634	다 함 께	* 후 주	찬 양 팀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뒤희사”		손달익 목사		
* 찬 송	30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유태왕	차주연	양경실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백주원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최유현		김양언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영은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최종국 목사	오만옥 집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66:8-9	인 도 자
찬 송	35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320	다 함 께
성 경	행 12:1-5	인 도 자
사명자대회 발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손달익 목사	
* 찬 송	21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박미현2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박길자 권사
성 경	마 3: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참된 회개”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 안효주
설 교 손달익, 현종필 목사

금요기도회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